

勞 動 經 濟 論 集
第43卷 第3號, 2020.9. pp.1~31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중고령층 자영업 이탈 요인 분석: 자영업 이탈 이유를 중심으로*

문 상 균**·박 세 정***

본 연구는 중고령층 자영업 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자영업 이탈 이유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고령화 연구 패널(KLoSA)의 1~6차 및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영업 이탈 이유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탈한 집단이 다른 이유로 이탈한 집단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으로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만을 실패로 정의하는 경쟁위험회귀모형(competing risk regression models)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자영업 이탈 요인으로 알려졌던 성별, 연령, 학력 변수의 유의성이 사라졌다. 반면 동종 산업 경력이 자영업 이탈 위험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에 직면할 위험이 큰 자영업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종 산업 내 경력이 부족한 채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중고령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제어 : 자영업 이탈, 노동시장 재진입, 중고령층, 동종 산업 경력, 경쟁위험회귀모형

논문 접수일: 2020년 04월 30일, 논문 수정일: 2020년 07월 28일, 논문 게재확정일: 08월 12일

*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대학원생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논문의 개선점을 제안해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 1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석박통합과정 수료(hwoarang67@naver.com)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석박통합과정 수료(sjsj.econ@gmail.com)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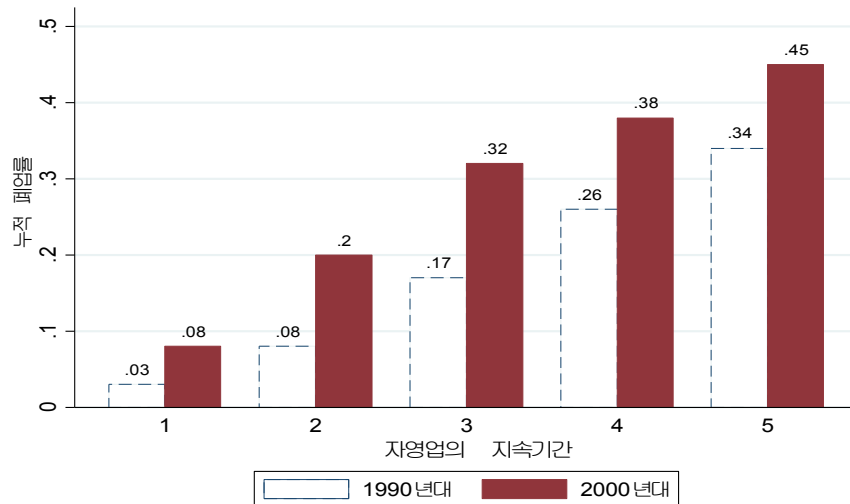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 빈곤율(2018년 OECD 기준 45.7%)은 많은 중고령층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노인 빈곤의 원인에는 무엇보다도 고령층 취업의 어려움과 부실한 사회안전망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고령층은 부족한 노후 준비에 대한 개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많은 경우 생계형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고 있다(박미현, 2012; 성지미·안주엽, 2006; Bruce, Holtz-Eakin & Quinn, 2000; Gu, 2009; Zissimopoulos & Karoly, 2007). 실제로 OECD(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중은 OECD 국가 평균(27.3%)의 2배 이상인 63%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층 자영업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자영업 고령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이아영 외, 2019).

그러나 중고령층의 자영업 창업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자영업 지속기간이 최근 들어 더욱 짧아졌다는 것이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령화 연구 패널(KLoSA)을 이용하여 만 45세 이상 중고령층 자영업의 누적 폐업률을 창업 시기에 따라 1990년대와 2000년대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창업 시기가 1990년대인 경우, 창업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기업의 비율이 3%였으며, 2년 이내에 폐업한 자영업 비율이 8%, 창업 후 5년 이내에 폐업한 자영업 비율은 34%였다. 그러나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창업 후 폐업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 1년 이내에 폐업한 기업이 8%였으며, 2년 이내에 폐업한 자영업 누적 비율은 20%였고 5년 내 폐업한 자영업 비율이 45%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기업생멸 행정통계의 결과와도 일치한다¹⁾.

두 번째 문제점은 자영업의 경우 폐업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자영업 이탈 이후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이 임금 근로자가 실직 후 겪게

1)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2019)에 따르면, 2017년에 소멸한 기업이 69만 개 이상(전년 대비 11.5% 증가)으로 폐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에 개업한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3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진입이 쉬운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음식, 소매, 숙박업 등 특정 업종에서는 지속기간이 더욱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창업 시기별 누적 폐업률



되는 어려움에 비해 크며, 자영업 이탈을 경험한 사람 사이에서도 이탈의 이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KLoSA를 이용하여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비율을 살펴보면, 자영업 이탈자의 재취업 비율은 57%로 퇴직한 임금근로자의 재취업 비율인 7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 이탈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탈의 이유에 따라 재취업 비율을 확인하면,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이탈한 사람의 재취업 비율은 81%로 상당히 높은 반면, 경영상 어려움(71%)이나 건강상의 이유(26%)로 이탈하게 된 자의 재취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고령층 자영업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폐업 비율, 자영업 이탈 이후 낮은 노동시장 재진입 비율을 통해 노동시장 내 취약 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고령층 자영업자가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층의 자영업 이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자영업 이탈 이유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직면한 어려움의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자영업 이탈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일자리 이탈에 관한 문헌은 주로 자영업의 지속기간과 이탈 요인을 분석하였다. 안주엽·성지미(2003)는 한국노동패널(KLIPS) 제1차~4차 자료, 전체 표본 5,357개를 이용하여 자영업 진입 시점에 따른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진입 이후 6년 이내에 자영업을 이탈한 비중이 50%가 넘는 것을 보임으로써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길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업종 혹은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이탈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더불어, 최화영(2018)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의 조사연구가 추가된 KLoSA를 이용하여 중고령층 자영업 이탈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중고령층의 자영업 이탈 이후 노동시장에 관한 분석은 중고령층의 노후 및 생계와 관련한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발히 연구되지 못하였다. Hyttinen and Rouvinen(2008)은 자영업 혹은 실업을 경험한 후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유럽 자료(ECH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를 유지한 경우에 비해 자영업을 경험하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였을 때 임금이 감소하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였다. 그러나 실업 기간이 길수록 노동시장 재진입 후 임금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인 우석진(2010)은 표본을 자영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중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 서 퇴직한 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석진(2010)은 고령 은퇴자의 퇴직 후 노동시장 복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콕스 비례위험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정년퇴직 시점 이전에 은퇴하는 중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한국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부분 은퇴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은퇴 유형의 이질성을 통제해 주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자영업 이탈을 분석한 선행 연구(남윤미, 2017; 최화영, 2018)와 중고령층 자영업 분석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그 중요성에 비해 다루어지지 못했던 이탈 이유와 과거 경력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자영업 이탈은 다양한 이유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중고령층의 경우 이탈 이유에 따라 이탈 이후 재진입까지의 기간과 재진입 시 임금이 상이함을 확인한다. Hyttinen and Rouvinen(2008)의 연구가 밝힌 바와 같이 길어진 실업 기간이 이후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탈 이유는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진입 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탈 사유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에 주목하여 자영업 이탈 요인을 분석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성별, 연령과 같은 인적 특성의 유의성은 사라지며 동종 산업 경력이 이탈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표본 구성에 있어 회고적인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1차 설문 조사 시점 이전에 자영업에서 이탈한 표본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자영업을 지속해온 표본이 상대적으로 과다 대표되는 단점을 보완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II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제III장에서는 분석에 사용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소개하며, 기초통계분석과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제IV장에서는 자영업에 대한 이탈에 관한 분석 결과를 논의하며, 제V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자영업 지속기간과 이탈에 관해 연구한 초기 문헌으로는 안주엽·성지미(2003)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제1차(1998년)부터 제4차연도(2001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농림어업 종사자 포함 여부에 따라 표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자영업의 이탈 요인을 확인하였다. 다른 특성들을 통제하였을 때 성별, 업종이 자영업 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자영업에서 더 빨리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 또한 이탈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는 자영업 지속기간을 늘려 이탈을 지연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창업 훈련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를 지속기간 연장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남윤미(2017)의 경우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 업종의 자영업 폐업률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영업체들을 패널로 연결하였으며,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과 같은 읍면동 내의 동종업체 수를 자영업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정도를 의미하는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한국 자영업 현황의 문제점 중 하나인 자영업자 간 경쟁 과다의 문제를 설명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2012)에 따르면, 한국 자영업자의 41.2%가 ‘주변의 다른 자영업자’를 주된 경쟁 상대로 인식한다고 한다. 남윤미(2017)의 연구는 이러한 설문 결과의 실증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데 함의가 있다.

최근 중단자료가 축적되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가면서 중고령층에 한정하여 자영업 지속기간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최화영(2018)의 경우, 본 연구와 같은 자료인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제1차(2006년)부터 제5차(2014년)를 이용하여 중고

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탈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표본을 중고령층으로 한정하여 비교적 최신 자료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안주엽·성지미(2003)와 동일하게 성별, 업종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박미현(2012)은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 자료를 이용하여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창업 전 취업형태와 자영업 생존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창업 전 취업형태에 따라 임금근로자였던 집단의 자영업 생존율이 가장 높은 반면, 원래 자영업을 했던 중고령층의 창업 생존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창업 전 취업형태는 자영업의 생존율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를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즉, 중고령 자영업 집단은 자영업 창업을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이전의 경력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영업 생존분석을 함에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고령층의 자영업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전 취업형태의 이질성을 고려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인 Taylor(1999)는 영국 가계패널조사(BHPS)를 이용하여 이탈의 이유에 따라 자영업의 이탈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이탈의 이유(파산, 다른 일자리로의 이직 등)에 따라 자영업 종결 비중의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1991년 이후 창업한 영국 자영업자의 약 50%가 사업 시작 후 2년 이내에 자영업에서 이탈하였다. 모든 자영업은 파산으로 끝난다는 생각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이탈의 이유를 확인한 결과, 이탈한 자의 48%는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며 자영업이 종결되었으며 18%만이 파산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는 이탈의 이유에 따라 자영업 이탈에 영향을 준 주된 요인이 다를 것을 보였다. 즉, Taylor(1999)는 자영업 이탈의 이유를 나누어 파산 결정요인과 자발적 퇴출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자영업 이탈 이유에 따라 이탈 요인의 이질성이 존재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1차~6차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자영업 이탈의 이유를 고려하여 자영업 이탈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자영업 이탈의 이유에 따라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여부와 재진입 시 소득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자영업 이탈의 이유를 고려하여 자영업 이탈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이탈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 자영업 이탈 요인과 이탈 이후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이탈 요인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및 기초통계분석

1. 자료

중고령층 자영업자의 자영업 이탈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층의 근로 경험 및 근로 조건이 추적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이하 KLoSA)가 있다. KLoSA는 고령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위해 구축한 종단자료이다. 2006년 조사 시작 당시 연령이 45세 이상인 총 10,254명의 표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6년 1차 조사 이후 2년마다 패널 조사가 진행되어 현재 2018년 7차 자료까지 공개되었다. KLoSA는 조사 시점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중고령층의 직업 경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 조사한 직업력 자료를 통해 평생에 걸친 직업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들로 인해 KLoSA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과 같은 인적 특성과 자영업 진입 및 이탈의 관계를 분석하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 중고령층의 나이로 자영업에 진입한 사람들의 자영업 이탈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후 준비를 돕고 중고령 자영업자의 조기 폐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인 중고령 자영업자는 45세 이상²⁾의 나이에 자영업에 진입한 중고령층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자영업자³⁾는 본 조사의 경우 주된 일자리의 취업형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내 사업을 한다’라고 응답한 표본으로 정의하였으며, 직업력 자료의 경우 ‘점포가 있는 자영업자’로

2) 4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결과 및 유의성이 유사하였다. 중고령자를 몇 세로 정의하는가에 대하여 국가별 합의된 연령의 범위는 없다. 이처럼 중고령자의 구체적 연령 범위가 설정되지 않은 이유는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평균수명 증가가 중고령 시기를 연장하며 국가 및 사회적 특성에 따라 일치된 연령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화영, 2018). 한국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고령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55세 이상을 의미하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 증대를 위하여 만 40세 이상을 관련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자영업에 대한 정의 또한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국가별, 선행연구 및 분석 자료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응답한 표본을 자영업자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금재호 외(2009)가 정의한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를 모두 포함하며, KLoSA를 사용한 최화영(2018)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자영업자의 정의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영업 이탈은 한 표본이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여러 번의 자영업 진입과 이탈의 경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경험과 관계없이 중고령이 된 45세 이후 시작한 자영업 경험 중 첫 번째 자영업의 이탈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지나치게 과거에 자영업을 시작한 표본을 제외하기 위해 자영업 시작 시점을 1990년으로 제한하였다.⁴⁾ 한편, 이탈 시점은 따로 제한하지 않고 직업력 조사와 2006년 이후 설문조사를 모두 활용하였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 중 산업 분류가 농업, 임업, 어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변수의 결측이 없는 829명을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⁵⁾

2. 기초통계분석

가. 자영업 이탈과 이탈 이유

<표 1>은 KLoSA를 이용하여 전체 자영업자 중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과 이탈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 이후 자영업을 시작한 중고령층 829명 중 240명인 28.95%가 한 번도 폐업을 경험하지 않고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나머진 71.05%(589명)는 자영업 폐업을 경험한 사람의 비중으로서, 자영업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중고령층의 대다수가 이탈을 경험한 것을 확인하였다.

4) 자영업 시작 시점을 1990년 이후로 한정하는 이유는 1990년 전후의 자영업과 관련한 사회 경제적 특성 및 자영업 창업자들의 인적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재호 외(2006)에 따르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농업 부문의 자영업주 비중은 1990년대에 들어 높아졌다. 또한, 1990년대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단계로 접어들었다. 인적 특성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자영업주 수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남성 자영업주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자영업 창업주의 학력 또한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들과 더불어 과거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회고적 자료의 신빙성 문제로 인하여 1990년 이전에 창업한 자영업 경력은 제외하였다.

5) 설문조사에 실패한 임의 중도절단은 표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직업력 자료의 자영업 진입과 이탈의 경우 임의 중도절단이 없다는 점 그리고 연락 불가에 의한 임의 중도절단의 경우 직업 변경의 가능성이 큼으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이를 포함하더라도 주요 분석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1> 자영업 지속 및 이탈 비율

	표본 수	비율(%)
자영업 지속	240	28.95
이탈	589	71.05
전체	829	100.0

<표 2>⁶⁾ 이탈 이유에 따른 분포

		표본 수	비율(%)
이탈 이유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48	8.15
	경영상의 어려움	268	45.5
	건강	162	27.5
	적성, 근로 환경	26	4.41
	기타 ('모르겠음' 포함)	72	12.22
	무급종사자로의 전환	13	2.21
	전체	589	100.0

<표 2>는 자영업 폐업을 경험한 589명을 폐업 이유에 따라 분포로 나타내었다. 폐업 이유는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경영상의 어려움', '건강', '적성, 근로 환경', '기타(모르겠음 포함)', '무급종사자로의 전환'까지 총 6개로 나누었다. 폐업 이유 중 '경영상의 어려움'이 4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이며 그 비율은 27.5%이다. 기타 응답을 제외하면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가 8.15%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나. 이탈 이유에 따른 노동시장 재진입

자영업 이탈 이유는 자영업 이탈뿐만 아니라 이탈 이후의 노동시장 재진입 여부와 재진입 이후의 일자리 질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영업 이탈 이유에 따른 이탈 이후의 노동시장 재진입 여부 및 일자리 질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때 재진입 여부는 이탈하였다고 응답한 다음 조사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일자리 질은 노동시장 재진입 이후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 혹은 순소득으로 보았다. 자영업 이탈 이유를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표본이 포함된 기타를 제외하고

6) 설문 응답에 대한 분류 방식은 <부표 1>에 제시하였다.

표본이 많은 순으로 이탈 이유 3가지를 나열하면 경영상의 어려움, 건강 그리고 다른 일 자리가 생겨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는 이 3가지 이유에 따른 실제 노동시장 재진입 비율과 재진입 이후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을 비교하였다. 이탈 이유에 따라 재진입 관련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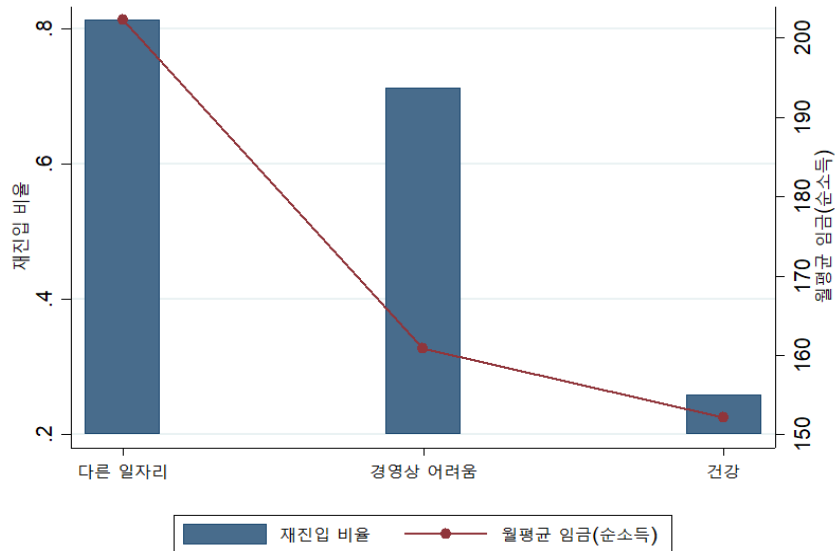
먼저 재진입 비율을 보면,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자영업을 이탈한 경우 노동시장 재진입 비율이 81%⁷⁾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탈한 경우에는 재진입 비율이 71%로 나타나,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자영업을 이탈한 경우에 비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탈한 집단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영업을 이탈한 표본의 노동시장 재진입 비율은 26%로 더욱 낮았다. 그러나 재진입에 실패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비율을 살펴보면, 건강 문제로 이탈한 표본 중 재진입에 실패한 표본의 11%만이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탈한 경우 재진입에 실패한 표본 중 21%가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의 이유로 이탈한 표본에 비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탈한 표본이 노동시장 재진입을 더욱 원하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경영상의 이유로 이탈한 경우 근로 의욕은 있으나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또한, 자영업을 이탈한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당시의 임금을 살펴보면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자영업을 이탈한 경우 평균 202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탈한 경우에는 재진입 당시 임금이 월평균 160만 원으로 나타나며,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자영업을 이탈한 집단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여 재진입 임금을 분석하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탈한 경우만이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이탈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

7) 다른 일자리가 생겨 자영업을 이탈한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우려고’라고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비율은 재진입한 일자리에서 임금 근로 혹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일자리가 생겨 노동시장에 재진입은 하였지만, 소득이 잡히지 않는 표본(예. 무급가족종사자)과 재진입한 표본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재진입 비율이 100%가 되지 않았다.

8)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기초통계와 동일한 결과가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해 재취업 여부와 재취업 일자리 질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부표 3>과 <부표 4>에 제시하였다. 노동시장 재진입까지의 기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콕스 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이탈한 경우에 비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탈한 경우 재진입 위험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진입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재진입 일자리의 임금 혹은 순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또한 재진입에 대한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자영업 이탈 이유별 재취업 시 노동시장 재진입 비율 및 월평균 임금 소득



으로 나타났다. 즉, 이탈 이유별 노동시장 재진입 비율 및 재진입 시 임금을 통해 이탈의 이유에 따라 표본의 특성이 다르며, 이탈의 이유 중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자영업 이탈의 이유별 자영업 관련 기초통계

<표 3>은 자영업 이탈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변수들을 이탈 여부 및 이탈 이유에 따라 나누어 기초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탈 여부에 따라 자영업 지속과 자영업 이탈로 나누었으며, 자영업 이탈은 이탈의 이유에 따라 크게 2가지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과 그 외의 이탈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따른 이유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은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이탈한 경우에 비해 비자발적인 이탈일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후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은 건강으로 인한 이탈과 비교할 때 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 측면의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Taylor, 1999).⁹⁾ 따라서 본 연구는 주된 초점인 이탈의 이유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과 그 외 이탈로 나누었다.

이탈 여부에 대한 분석에 사용한 설명변수는 인적 특성, 직업적 특성, 직접 운영한 자영업과 관련한 특성을 포함하였다. 인적 특성과 관련한 변수로는 연령, 성별, 자녀 유무, 학력이 있다. 이때, 연령은 자영업 시작 당시의 연령을 나타낸다. 학력은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의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자영업과 관련한 변수로는 직업 및 종사한 산업, 임금근로자 고용 여부, 시작 연도, 순수입을 사용하였다. 직업은 관리자 및 전문가, 준전문가/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그리고 그 외 직업으로 3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 외 직업 범주는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서비스, 판매, 사무, 단순노무, 군인을 포함한다. 산업은 제조 및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기타로 크게 4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임금 근로자 고용 여부는 자영업 시작 당시의 임금 근로자 고용 여부에 따라 더미 변수로 구성하였다.¹⁰⁾ 순수입 변수는 자영업 시작 시점의 사업 규모를 통제하고자 포함하였으며, 자영업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해의 월평균 순수입 금액을 이용하였다¹¹⁾.

<표 3>을 살펴보면 자영업 이탈의 이유에 따라 분류한 그룹이 상이한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자영업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탈한 집단의 지속기간은 평균 6.47년으로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11.28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이유로 이탈한 집단(7.23년)에 비해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²⁾ 이와 같은 결과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탈한 집단에 주목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자영업의 짧은 지속기간과 이후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이거나 자영업 시작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 이탈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금재호 외, 2003; 안주엽·성지미, 2003; 최화영, 2018).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표 3>의 자영업 유지 집단과 그 외 이탈 집단을 비교하면 이탈 그룹의 시작 연령과 여성 비율이 높다. 그러나 자영업을 유지한 그룹

9) 건강 악화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우 이탈 이후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 악화는 정책의 측면에서 사후적 대책이 중요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은 훈련과 같은 정책을 통해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이탈 이유이다.

10) 임금근로자 고용 여부는 2006년 이전 시작한 자영업의 경우 직업력 자료에서 해당 자영업 기간 내에 임금근로자 고용 여부를 변수로 이용하였다.

11) 순수입 변수는 2006년 이전 시작한 자영업의 경우 직업력 자료에서 해당 자영업 기간의 평균 순수입을 변수로 이용하였다.

12)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탈한 집단과 그 외 이탈 집단의 자영업 지속기간에 대한 t-test 결과 t값이 2.28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탈한 그룹을 비교하면 오히려 이탈한 집단의 연령과 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에 대한 분석은 전체 이탈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달리 이탈 여부에 대한 연령 혹은 성별의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분석의 주요 설명변수 중 하나인 동종 산업 경력 변수는 자영업자가 현재 운영하는 자영업의 산업과 같은 산업에서 현재 사업 이전에 경험한 경력을 나타낸다. 이때 산업은 자영업의 산업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경력은 해당 산업 내에서 창업한 경력과 고용원으로 일한 경력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때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를 동종 산업 경력 변수로 정의한다. 동종 산업 경력 변수의 경우 자영업 유지 그룹 중 5년 이상의 경력을 갖는 비중이 43%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이탈 그룹 중 5년 이상의 경력을 갖는 비중은 35%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탈하는 경우 그 비율이 24%로 떨어지며, 유지 그룹 및 그 외 이탈 그룹과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종 산업 경력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자영업 유지 및 이탈 이유에 따라 집단의 특성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초통계분석의 결과는 이탈의 이유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이를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IV장의 분석 결과에서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한 후 이탈 여부와 설명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탈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전체 이탈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표 3〉 자영업 이탈 이유와 관련된 기초 통계지

대분류	유형	변수	자영업 유지(28.95%)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탈(32%)				그 외 이탈(39%)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자영업 관련 특성	기간	자영업 지속기간	11.28	6.48	1	27	6.47	4.27	1	24	7.23	5.01	1	25
		관리자 및 전문가, 준전문가	0.15	0.36	0	1	0.21	0.41	0	1	0.14	0.34	0	1
	주된 업무	가능원 및 기능중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0.29	0.46	0	1	0.13	0.34	0	1	0.16	0.37	0	1
		서비스 판매, 사무, 단순노무, 군인	0.56	0.50	0	1	0.66	0.47	0	1	0.70	0.46	0	1
	산업	제조 및 건설업	0.13	0.34	0	1	0.15	0.36	0	1	0.11	0.31	0	1
		도매 및 소매업	0.25	0.43	0	1	0.26	0.44	0	1	0.28	0.45	0	1
		숙박 및 음식점업	0.17	0.37	0	1	0.27	0.44	0	1	0.23	0.42	0	1
		기타	0.45	0.50	0	1	0.32	0.47	0	1	0.38	0.49	0	1
	직원유무	임금 근로자 고용 여부(고용=1)	0.22	0.41	0	1	0.40	0.49	0	1	0.31	0.46	0	1
	소득	순수입(월, 만원)	182	134	0	800	150	121	0	1000	157	165	0	1500
2000-2016(2000년대=1)		0.83	0.38	0	1	0.59	0.49	0	1	0.66	0.47	0	1	
경력 사항	동종 산업 경력(5년이상=1)	0.43	0.50	0	1	0.24	0.43	0	1	0.35	0.48	0	1	
	대기업 경력 여부	0.24	0.43	0	1	0.21	0.41	0	1	0.14	0.35	0	1	
성별	여성	0.44	0.50	0	1	0.41	0.49	0	1	0.45	0.50	0	1	
	연령	53.69	6.25	45	80	52.04	6.43	45	76	54.94	7.77	45	82	
인적 특성	자녀	0.97	0.17	0	1	0.96	0.19	0	1	0.98	0.15	0	1	
	학력	초졸이하	0.21	0.41	0	1	0.24	0.43	0	1	0.27	0.45	0	1
	중졸	0.20	0.40	0	1	0.13	0.34	0	1	0.19	0.39	0	1	
	고졸	0.45	0.50	0	1	0.44	0.50	0	1	0.41	0.49	0	1	
	대졸이상	0.14	0.35	0	1	0.19	0.40	0	1	0.13	0.33	0	1	
	표본수	240				268				321				

3. 분석방법

가. 생존분석

중고령층 자영업자의 자영업 이탈 요인과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요인¹³⁾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조사 기간 내에 자영업에서의 이탈 혹은 재진입이 일어나지 않는 우측 중도절단(right-hand censoring)된 표본의 문제를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 생존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영업 진입 이후 이탈까지 걸린 시간을 연속적이라고 가정하면 확률변수 T 의 누적분포함수는 $F(t) = \Pr(T \leq t)$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실패 함수(failure function)라 한다. 이러한 실패 함수의 확률밀도함수는 $f(t) = \frac{\partial F(t)}{\partial t}$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의 실패 함수와는 반대로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는 t 시점까지 이탈하지 않고 자영업을 유지할 확률로 이를 $S(t) = 1 - F(t) = \Pr(T > t)$ 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함수들을 이용하여 위험률(hazard rate)을 나타내는 위험 함수(hazard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조건부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

$$h(t) = \lim_{\Delta t \rightarrow \infty} \frac{\Pr[(t \leq T \leq t + \Delta t) | T \geq t]}{\Delta t} = \frac{f(t)}{S(t)} = -\frac{d}{dt} \log S(t)$$

위의 위험함수는 t 기까지 자영업에서 이탈하지 않았을 때 t 시점에서 이탈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생존분석을 통해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 위험함수를 이용하는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h(t|X_i) = h_0(t) \exp(\beta_1 x_{i1} + \beta_2 x_{i2} + \dots + \beta_k x_{ik})$$

위 식은 자영업 이탈의 위험률이 개인 i 의 관측 가능한 특성 X_i 와 기저 위험(baseline

13) 이를 분석한 결과는 <부표 3>과 <부표 4>에 제시하였다.

hazard) $h_0(t)$ 로 구성되며, 이때 기저 위험은 개인 i 의 특성에 의존하지 않고 시점 t 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¹⁴⁾ 이러한 가정에 따라 콕스 비례위험모형은 생존 기간의 분포에 대한 가정 없이 계수 β 를 추정할 수 있어 준모수적(semi-parametric) 추정이라 할 수 있다.

콕스 비례위험모형은 조건부 확률에 근거한 편우도함수를 최대로 만드는 계수를 추정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생존시간이 각각 다르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경우 자영업 진입 시점부터 이탈에 이르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같은 개체가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권장되는 Efron 방법을 사용하였다(장희원·김경근, 2014). 이는 동일한 자영업 지속기간을 갖는 사례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순서를 고려하여 계수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Exact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Efron 방법은 자영업의 이탈 순서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수치적 근사법(numerical approximation)을 이용함으로써 Exact 방법에 비해 계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Guo, 2010).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추정한 계수를 해석하기 위해 계수에 밀이 자연 상수인 지수함수를 취함으로써 위험비(hazard ratio)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한 위험비는 변수의 값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사건 발생 확률의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도출한 성별 변수의 위험비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여성일 때 자영업에서 이탈할 확률을 남성일 때의 이탈할 확률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즉, 위험비가 1보다 클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탈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1보다 작은 경우 확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이탈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이탈을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탈의 이유를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여러 이탈 이유 중 이탈 이후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개로 나타날 때 서로 다른 원인이 실패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경쟁하고 있다고 말할 수

14) 가정에 따라 자영업자 개인 l 과 m 의 위험함수의 비는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아래의 식과 같이 위험함수의 비는 X 의 차이에 비례하며 시간 t 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frac{h(t|X_l)}{h(t|X_m)} = \exp(\beta_1(x_{l1} - x_{m1}) + \beta_2(x_{l2} - x_{m2}) + \dots + \beta_k(x_{lk} - x_{mk}))$$

있다. 이와 같은 경쟁 위험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원인으로 인한 실패에 주목하고자 할 때 적합한 분석방법으로는 경쟁위험회귀모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위험회귀모형 중 Prentice et al.(1978)의 cause-specific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를 본 분석에 적용하면 자영업 이탈 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만을 실패(failure)로 간주하며, 이외의 이탈을 중도 절단된 것으로 취급한다(Taylor, 1999). 이를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을 j 라 하고, 원인 j 로 인한 실패만을 실패로 간주하는 cause-specific 위험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h_j(t) = \lim_{\Delta t \rightarrow \infty} \frac{\Pr[(t \leq T \leq t + \Delta t), \text{failure from cause } j | T \geq t]}{\Delta t}$$

위의 위험함수에 근거한 비례위험모형은 아래와 같고 추정 방식은 위의 콕스 비례위험모형과 동일하다.

$$h_j(t|X_i) = h_{j0}(t) \exp(\beta_{j1}x_{i1} + \beta_{j2}x_{i2} + \dots + \beta_{jk}x_{ik})$$

IV. 분석 결과

1. 분석 결과

가. 자영업 이탈 분석: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에 주목하여

먼저 <표 4>의 모형 (1)은 자영업 이탈의 이유와 관계없이 전체 자영업 이탈의 요인을 분석한다. 즉, 자영업 이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을 이용하여 분석한 콕스 비례위험모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 4>의 모형 (2)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에 주목하여 다른 이유로 이탈한 표본을 중도 절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쟁위험회귀모형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나타낸다(Taylor, 1999). 모형 (1)과 달리 모형 (2)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에 집중하는 이유는 앞서 기초통계량 분석을 통해 경영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탈한 경우 다른 일자리가 있어 이탈하는 집단보다 재진입 비율과 재진입 시 임금이 모두 낮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중고령층의 자영업 이탈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탈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을 고려하면 모형 (2)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모형(1)의 인적 특성에 관한 변수의 위험비를 살펴보면, 기존 문헌들과 동일하게 나이와 성별이 자영업 이탈 여부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변수들을 살펴보면 두 변수의 위험비가 모두 1이 넘어 나이가 많을수록 혹은 여성인 경우 이탈의 위험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를 기준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자영업 이탈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대한 위험비는 1이 넘어 학력이 높을수록 이탈의 위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재호 외(2009)와 최화영(2018)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자영업과 관련된 변수 중에는 특정 산업, 직업, 피고용인 유무와 자영업 시작 시점의 순수입이 이탈 위험률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중에는 제조 및 건설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도매 및 소매업 변수의 위험비가 1보다 작았다. 직업 중에는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를 기준으로 기능 혹은 장치 관련 종사자의 이탈 위험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장 내 임금근로자인 피고용인이 존재하는 경우 위험비가 1이 넘어 폐업의 위험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순수입이 많을수록 폐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반면 노동시장 내에서 개인의 경력을 나타내는 동종 산업 경력 변수와 대기업 경력 변수는 자영업 이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진입 시점에 관한 변수는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창업했을 때의 인구학적 특성, 자영업의 특성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력을 통제한 후에도 폐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변수의 위험비를 살펴보면 자영업을 시작한 시점이 90년대를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진입한 경우 폐업 위험률이 1.3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의 여러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최근으로 올수록 자영업 이탈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자영업 이탈 - 콕스 비례위험 및 경쟁위험회귀모형 결과

경력 사항	모형 1: 콕스 비례위험모형			모형 2: 경쟁위험회귀모형		
	위험비	표준오차	z-통계치	위험비	표준오차	z-통계치
동종 산업 경력(5년이상=1)	0.87	0.08	-1.51	0.56***	0.08	-3.84
대기업 경력 여부	0.95	0.11	-0.48	1.14	0.17	0.87
직업 (주된 업무)						
기준: 관리자 및 전문가, 준전문가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0.66***	0.10	-2.65	0.55**	0.13	-2.53
서비스 판매, 사무, 단순노무, 군인	0.94	0.13	-0.43	0.74	0.14	-1.56
기준: 제조 및 건설업						
산업						
도매 및 소매업	0.72**	0.11	-2.08	0.64*	0.15	-1.96
숙박 및 음식점업	1.11	0.18	0.64	1.00	0.23	0
기타	0.77*	0.11	-1.82	0.58***	0.12	-2.7
직원 유무						
임금 근로자 고용 여부(고용 =1)	1.54***	0.15	4.35	1.72***	0.24	3.85
소득						
순수입(월 만원)	0.999**	0.00	-2.31	0.998***	0.00	-3.45
기준: 초출 이하						
학력						
중졸	1.01	0.14	0.08	0.71	0.16	-1.54
고졸	1.21	0.15	1.56	1.04	0.20	0.21
대졸이상	1.42*	0.23	2.19	1.39	0.33	1.41
연령						
여성	1.03***	0.01	4.28	0.98	0.01	-1.42
자녀유무	1.23**	0.11	2.41	1.08	0.14	0.6
	0.63*	0.16	-1.87	0.47**	0.17	-2.1
2000년대						
2000-2010(2000년대=1)	1.35***	0.12	3.3	1.12	0.15	0.81
분석기간(Number of spells)			6762			
사례수(Number of subject)			829			
카이제곱			119.85***			93.89***

주1) 표준오차는 개인 군집강건표준오차를 나타냄.
 주2) *** 1%, ** 5%,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주3) 위험비(=exp(β)):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할 때 해당 변수가 한 단위의 증가할 경우의 위험률을 증가하지 않은 경우의 위험률로 나눈 값.

경쟁위험회귀모형 분석을 시행한 모형 (2)에서 모형 (1)의 결과와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는 동종 산업 경력 변수와 연령, 성별과 같은 인적 특성 변수이다. 동종 산업 경력 변수의 경우, 모형 (1)과 달리 모형 (2)에서 자영업 이탈과 유의한 관계를 갖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종 산업 경력 변수의 위험비는 0.56으로 1보다 작아 동종 산업에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영업 이탈의 위험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종 산업에서의 경력은 다른 일자리로의 이탈 혹은 건강으로 인한 이탈의 위험률을 낮춰주는 못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의 위험률은 낮추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¹⁵⁾

또한, 모형 (1)의 분석에서 이탈 여부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던 연령, 성별 그리고 학력 변수의 위험비가 모형 (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령 혹은 성별은 위의 기초통계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보다는 그 외 이유로 인한 자영업 이탈과 더욱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그러한 결과가 회귀분석에서도 유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모형 (1)과 모형 (2)의 인적 특성 변수 및 동종 산업 경력 변수의 결과 차이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에 주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위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정책을 제안한다면, 모형 (1)의 결과를 기반으로 할 때와는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천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에 직면할 위험이 큰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는 특정 성별 혹은 연령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력이 높은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동종 산업에서의 경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강건성 검정

<표 4>의 경쟁위험회귀모형의 결과가 일관성 있게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강건성 검정을 시행한다. 먼저 주요 설명변수인 동종 산업 경력 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의 정의 방식을 바꾸어 일관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한다. 두 번째로는 모형 (2)에서 채택한 분석방법인 경쟁위험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의 강건

15) 자영업 산업 종류에 따라 모형(2)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산업 종류인 도소매 혹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 포함되는 자영업과 그 외 산업에 속하는 자영업, 두 부분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두 부분집단 모두 동종 산업 경력이 위험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¹⁶⁾ 강건성 검정: 동종 산업 경력 변수 구성 변경

		동종 산업 경력 변수 구성 변경					
		10년 이상 = 1		연속변수		전체 근로 경력	
		위험비	z-통계치	위험비	z-통계치	위험비	z-통계치
경력 사항	동종 산업 경력	0.68**	-2.51	0.98***	-3.06	1.40	1.46
	기준: 초졸 이하						
학력	중졸	0.74	-1.38	0.74	-1.38	0.76	-1.23
	고졸	1.07	0.35	1.06	0.29	1.14	0.69
	대졸 이상	1.39	1.38	1.37	1.33	1.46	1.59
연령		0.99	-1.14	0.99	-1.12	0.99	-1.07
여성		1.10	0.72	1.09	0.68	1.18	1.2
분석 기간 (Number of spells)		6762					
사례 수 (Number of subject)		829					
카이제곱(자유도= 16)		81.00***		86.45***		72.22***	

- 주: 1) 표준오차는 개인 군집강건표준오차를 나타냄.
 2) *** 1%, ** 5%,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3) 위험비(=exp(βi)):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할 때 해당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의 위험률을 증가하지 않은 경우의 위험률로 나눈 값.
 4) <표 4>와 동일한 통제변수를 사용하였으나 주요 변수만 나타냄.

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탈을 경험하지 않고 자영업을 유지하는 표본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탈하는 표본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제한하여 분석한다. 표본을 제한한 후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시행하여 그 결과가 <표 4>의 모형 (2)와 일관됨을 확인한다.

먼저 동종 산업 경력 변수에 관한 강건성 검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변수의 정의를 3가지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기존 분석에서 사용하였던 동종 산업 경력 변수는 자영업이 속하는 산업에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로 정의하였다. 강건

16) 다른 설명변수를 포함한 강건성 검정 전체 결과는 <부표 2>를 참조하였다.

성 검정을 시행하기 위해 변수를 새롭게 정의한 방법은 첫째, 만약 동종 산업에서의 경력이 자영업 유지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경력이 증가하더라도 상관관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동종 산업 경력 변수의 기준이 되었던 ‘5년 이상’의 조건을 ‘10년 이상’으로 변경한 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동종 산업 경력 변수를 더미 변수로 정의하지 않고 동종 산업 경력 기간을 나타내는 연속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동종 산업 경력 변수를 동종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의 경력을 모두 더한 전체 근로 경력으로 대체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5>는 동종 산업 경력 변수에 관한 강건성 검정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동종 산업 경력 더미 변수의 조건을 10년으로 강화하거나 연속변수¹⁷⁾로 변환하는 2가지 경우 모두 동종 산업 경력 변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이 그대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세 번째 방법인 타 산업에서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 전체 근로 경력이 5년 이상일 때 1의 값을 갖는 경우, 경력 변수 위험비의 유의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탈 위험률과의 관계의 방향성도 반대로 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동종 산업의 경력이 많은 것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 위험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으나 동종 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 내 경력까지 포함한 근로 경력의 경우 그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쟁위험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분집단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부분집단의 표본은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표본과 자영업에서 이탈한 표본 중 경영상의 이유로 이탈한 표본만으로 구성된 후 생존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6>은 표본을 제한한 상태에서 콕스 비례위험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동종 산업 경력 변수의 위험비가 나타내는 방향성과 유의성은 경쟁위험회귀모형의 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 성별, 학력 또한 이탈 위험률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표 4>의 모형 (1)과 다르며, 경쟁위험회귀모형을 사용한 모형 (2)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앞선 경쟁위험회귀모형의 결과가 변수의 구성이나 특정한 분석방법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17) 추가적으로 동종 산업 경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에 대한 더미 변수를 각각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2년 이상 동종 산업 경력이 있는 경우부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년 이상의 경우에도 유의하지 않으나 이탈의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방향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¹⁸⁾ 강건성 검정: 표본의 제한

		표본의 제한	
		경영상의 어려움 외 표본 제외	
		위험비	z-통계치
경력 사항	동종 산업 경력	0.63***	-3.1
	기준: 초졸 이하		
학력	중졸	0.70	-1.63
	고졸	1.01	0.05
	대졸이상	1.40	1.45
연령		1.00	0.25
여성		1.21	1.43
분석 기간(Number of spells)		4441	
사례 수(Number of subject)		508	
카이제곱(자유도= 16)		92.34***	

주: 1) 표준오차는 개인 군집강건표준오차를 나타냄.

2) *** 1%, ** 5%,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3) 위험비(=exp(β_1)):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할 때 해당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의 위험률을 증가하지 않은 경우의 위험률로 나눈 값.

4) <표 4>와 동일한 통제변수를 사용하였으나 주요 변수만 나타냄.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 자영업자의 자영업 이탈 요인을 분석하였다. 자영업 이탈은 표본의 조사 기간 내에 사건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우측 중도절단(right-hand censoring)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때 KLoSA의 회고적 응답 자료인 직업력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조사 기간 내에 사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과거 폐업을 경험한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자영업 이탈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두 가지 차별성을 가진다. 첫 번째 차별점은 표본 구성에 있어 KLoSA의 회고적 응답 자료인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사업이

18) 다른 설명변수를 포함한 강건성 검정 전체 결과는 <부표 2>를 참조하였다.

유지되고 있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1차 설문 조사 시점 이전에 자영업에서 이탈한 표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어 오던 오랜 기간 자영업을 지속해온 표본이 상대적으로 과다 대표되는 문제를 보완하였다.

두 번째는 자영업 이탈의 이유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자영업 이탈의 이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자영업을 이탈하는 것과 그 이외의 이유로 이탈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따른 이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탈한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이탈한 사람들에 비해 이탈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이탈한 자영업자들에 비해 근로의욕이 높아 실업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이탈의 이유를 고려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영업 이탈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과 같은 인적 특성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동종 산업 내 경력의 중요성이 강화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동종 산업 내의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폐업의 위험률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탈의 이유를 고려하기 이전에 동종 산업 경력이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상이한 결과로서, 동종 산업에서의 경력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이탈하는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종의 자영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더라도 유지되었다. 즉,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자영업 이탈의 요인으로서 동종 산업 내 경력의 중요성은 특정 산업에 구애되지 않고 나타나는 결과이다.

위의 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자영업 창업 전 동종 산업 경력 획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중고령층은 동종 산업 경력이 없는 분야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매업이나 음식점업과 같이 창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은 경력이 부족한 자영업자가 쉽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러한 중고령층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자영업을 이탈하는 것을 막고 이후 노동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진입 이전에 동종 산업 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 성공 및 실패 사례 제공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자영업 이탈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KLoSA 1차 조사(2006년)부터 6차 조사(2016년)까지의 자료와 함께 직업력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 과대 추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업력 자료를 추가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직업력 자료는 응답자의 회고적 기억에 의존한

응답으로 자료 자체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층에 대한 패널 자료가 길게 축적된다면 더욱 발전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최근 청년층의 자영업 창업 및 이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고령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자영업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연령층의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자영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역 내 동종 산업의 경쟁자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자 간 경쟁 과다는 자영업 현황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이다. 실제로 국내 자영업자 중 일부는 동일 지역 내 동종 산업의 다른 자영업자를 자신의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지역이 시·도로 구분되어 있어 자영업자 간 경쟁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간 경쟁을 고려한다면 자영업에 관한 후속 연구가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금재호·김기승·조동훈·조준모.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 자영업의 변화추이와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2009.
- 금재호·류재우·전병유·최강식.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3.
- 금재호·윤미례·조준모·최강식.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06-10, 2006.
- 남윤미.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Exit of Self-Employed Businesses in Korea)」. 『한국은행 경제연구』 5호 (2017): 1-37.
- 박미현. 「창업 전 취업형태와 중고령자 자영창업의 생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8 (2012): 176-194.
- 성지미·안주엽.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권 1호 (2006): 39-74.
- 안주엽·성지미.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26권 2호 (2003): 1-30.
- 우석진. 「한국 고령노동자의 부분은퇴와 노동시장 복귀」. 『한국노년학』, 30권 2호 (2010): 499-513.

- 이아영 · 황남희 · 양준석 · 안영.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장희원 · 김경근. 「대학생의 졸업 속도 영향요인에 대한 생존 분석 : 4년제 대학 여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4권 3호 (2014): 217-241.
- 최화영. 「고령화연구조사 (KLoSA) 패널을 활용한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탈 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37권 1호 (2018): 119-138.
-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2018. 12. 10.).
- 현대경제연구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자영업자의 대 문제」. 『한국경제주평』 12권 27호 (2012.07.): 1-25.
- Bruce, D., Holtz-Eakin, D., and Quinn, J. "Self-employment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at older ages." *Boston College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Working Paper* 13 (December 2000): 1-30.
- Gu, Qian. *Self-Employment among Older Workers: Assistance Programs, Liquidity Constraints and Employment Patterns*. Santa Monica, CA: Pardee Rand Graduate School, 2009.
- Guo, S. *Survival analysi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Hyttinen, A., and Rouvinen, P. "The labour market consequences of self-employment spells: European evidence." *Labour Economics* 15 (2) (April 2008): 246-271.
- OECD. *OECD Economic Review of Korea*. OECD Publishing, 2018. <http://www.oecd.org/economy/surveys/Korea-2018-OECD-economic-survey-overview-Korean.pdf>
- ,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4*, OECD Publishing, 2014. http://dx.doi.org/10.1787/entrepreneur_aag-2014-en
- Prentice, R. L., Kalbfleisch, J. D., Peterson Jr, A. V., Flourmoy, N., Farewell, V. T., and Breslow, N. E. "The analysis of failure times in the presence of competing risks." *Biometrics* (December 1978): 541-554.
- Taylor, M. P. "Survival of the fittest? An analysis of self-employment duration in Britain." *The Economic Journal* 109 (454) (March 1999): 140-155.
- Zissimopoulos, J. M., and Karoly, L. A. *Work and Well-Being Among the Self-Employed at Older Ages*. Washington, DC: AARP, 2007.

부 록

〈부표 1〉 자영업 이탈 이유 분류 방법

변수 구성	조사 질문 응답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월급을 받는 일자리가 생겨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다른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우려고
경영상의 어려움	장사,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일의 장래성이 없어서
건강	건강이 좋지 않아서
	쉬고 싶어서
	결혼, 출산, 육아, 가족간병 등으로
적성, 근로 환경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근로시간이 길어서/근로환경이 나빠서
	집이 이사하여서
	학업, 군대 때문에
기타 ('모르겠음' 포함)	모르겠음
	응답 거부
	기타
무급종사자로의 전환	같은 직장에서 무급가족 종사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표 2> 강건성 검증

	동종 산업 경력 변수 구성 변경						표본의 제한	
	10년이상 = 1		연속변수		전체 근로 경력		경영상의 어려움 외 폐업 제외	
경력 사항	위험비	표준 오차	z-통계치	위험비	표준 오차	z-통계치	위험비	표준 오차
직업 (주된 업무)								
경력 동종 산업 경력	0.68**	0.11	-2.51	0.98***	0.01	-3.06	0.63***	0.09
대기업 경력 여부	1.17	0.18	1	1.15	0.18	0.93	0.96	0.14
직업 기준: 관리자 및 전문가, 준전문가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장치	0.52***	0.12	-2.72	0.53***	0.13	-2.64	0.51***	0.12
기계조작 및 조립								
서비스, 판매, 사무, 단순노무, 개인	0.75	0.15	-1.49	0.75	0.15	-1.48	0.88	0.17
기준: 제조 및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0.63**	0.14	-2.04	0.62**	0.14	-2.12	0.68*	0.15
숙박 및 음식점업	0.97	0.23	-0.12	0.95	0.22	-0.21	1.00	0.23
기타	0.58***	0.12	-2.67	0.57***	0.12	-2.77	0.67**	0.14
직원 업무								
임금 근로자 고용 여부(고용=1)	1.69***	0.24	3.71	1.71***	0.24	3.79	1.91***	0.28
소득								
순수입(월 만원)	0.998***	0.00	-3.29	0.998***	0.00	-3.29	0.998***	0.00
기준: 초졸이하								
중졸	0.74	0.16	-1.38	0.74	0.16	-1.38	0.76	0.17
고졸	1.07	0.21	0.35	1.06	0.20	0.29	1.14	0.22
대졸이상	1.39	0.33	1.38	1.37	0.33	1.33	1.46	0.34
연령	0.99	0.01	-1.14	0.99	0.01	-1.12	0.99	0.01
여성	1.10	0.15	0.72	1.09	0.15	0.68	1.18	0.16
자녀유무	0.55	0.22	-1.51	0.52*	0.19	-1.76	0.54	0.22
2000년대								
2000-2016(2000년대=1)	1.11	0.15	0.75	1.12	0.15	0.82	1.12	0.16
본석 기간(Number of spells)				6762				4441
사례 수(Number of subject)				829				508
카이제곱				81.00***			72.22***	92.34***

주1) *** 1%, ** 5%,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주2) 위험비(=exp(beta)) :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할 때 해당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의 위험률을 증가하지 않은 경우의 위험률로 나눈 값.

〈부표 3〉 재진입에 대한 콕스 비례위험모형 추정 결과

재취업 여부와 기간		콕스비례위험모형		
		위험비	표준오차	z-통계치
폐업 이유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	.	.
	경영상의 어려움	0.74*	0.13	-1.66
	건강	0.24***	0.05	-6.27
	적성, 근로환경	0.99	0.28	-0.03
	기타 ('모르겠음' 포함)	0.65*	0.14	-1.96
	무급종사자로의 전환	0.22***	0.12	-2.83
학력	기준: 초졸 이하	.	.	.
	중졸	0.96	0.18	-0.21
	고졸	1.05	0.16	0.32
	대졸이상	1.11	0.21	0.55
연령		0.95***	0.01	-4.92
여성		0.96	0.11	-0.40
경력 사항	대기업 경력 여부	1.17	0.17	1.12
자영업 지속기간		1.03*	0.02	1.91
폐업시점	2000~2016(2000년대=1)	0.89	0.14	-0.79
분석기간(Number of spells)		2791		
사례수(Number of subject)		589		
카이제곱		137.21***		

주: 1) *** 1%, ** 5%,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위험비(=exp(βi)):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할 때 해당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의 위험률을 증가하지 않은 경우의 위험률로 나눈 값.

〈부표 4〉 재진입 일자리 임금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분석 결과

재진입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 혹은 순소득		선형회귀분석		
		계수	표준오차	t-통계치
폐업 이유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	.	.
	경영상의 어려움	-51.678*	29.68	-1.74
	건강	-40.13	37.57	-1.07
	직성, 근로환경	-71.16	46.35	-1.54
	기타 ('모르겠음' 포함)	-25.34	35.88	-0.71
	무급종사자로의 전환	-12.22	87.19	-0.14
학력	기준: 초졸이하	.	.	.
	중졸	34.94	31.94	1.09
	고졸	63.33**	25.72	2.46
	대졸 이상	61.11*	31.76	1.92
연령		-4.68***	1.69	-2.77
여성		-20.24	19.11	-1.06
경력 사항	대기업 경력 여부	42.47*	24.27	1.75
자영업 지속기간		5.46**	2.66	2.05
폐업시점	2000~2016(2000년대=1)	31.13	26.89	1.16
상수항		394.46***	102.86	3.83
표본수(Number of sample)			322	
R제곱			0.10	

주: 1) *** 1%, ** 5%,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abstract

**A Study on Determinants of the Elderly's
Self-employment Exits
- Focusing on why they exit from their owned
business**

Sanggyun Moon · Sae Jung Park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self-employment exits among the middle-aged and senior adults. For the analysis, we used KLoSA(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data from the first(2006) to the sixth(2016) and vocational data, which is a retrospective data surveyed in 2007. Among the reasons for exiting the self-employment, we find that the group that went out of their businesses due to management difficulties were more likely to have economic difficulties after the exit. Therefore, we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self-employment exits considering the exit reason due to management difficulties. The analysis model used a competing risk regression model that defined the only exit due to management difficulties as failures. As a result, the significance of gender, age, and education variables, which were well known as determinants of exiting the self-employment, disappeared.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the prior experience in the same industry tended to lower the risk of exiting the self-employment. To summarize the results, we suggest that we need some ways to help the middle-aged and senior adults who start their own businesses without any experience in the same industry to prevent them from failures.

Keywords : self-employment exits, the middle-aged and senior adults, prior experience, competing risk regression model